

인문사회·예술夜 등 10개 강좌...피아니스트 김주영·로자 등 강의

ACC 시민아카데미

예술·인문 강연 작품 감상·체험

피아니스트 김주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무용가 정희자 김상연 작가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됐던 전시,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가 일부 재개된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등 다양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아카데미를 오는 26일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한다.

문화예술, 인문사회, 예술夜, ACC특화강좌, 일일강좌 등 5개 분야 10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러진 강사진은 강연 위주에서 벗어나 작품 감상,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미술, 발레, 사진을 다른 강좌로 구성했다.

ACC 대표 강좌로 자리매김한 '라이브클래식 IX' (매주 화요일, 26일-7월 14일)은 국내 정상급 연주자의 현장 연주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공연식 강연이다. 피아니스트 김주영과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등 연주자가 공동으로 이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주옥같은 실내악과 바로크 음악의 절제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상연 작家的 '현대미술 속에 감춰진 동양판화의 비밀' (매주 토요일, 30일-7월 11일)에선 수인(水仁)판화를 체험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본다.

또한 정희자 발레무용가의 'Bravo My Body! 발레III' (매주 목요일, 28일-7월 16일)와 필름카메라의 아날로그 사진을 찍는 박일구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소통하다- 필름카메라의 추억' (매주 금요일, 5월 29일-7월 3일) 강좌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문사회 분야는 문학을 읽고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필름 로자로 잘 알려진 이현우 서평가의 'ACC 문학살롱-한국현대문학 다시 읽기' (격주 화요일, 6월 2일-7월 1일)과 김연 시인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글쓰기' (매주 수요일, 6월 3일-7월 1일) 강좌가 펼쳐진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 강좌 예술夜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한다.

지역 독립서점과 함께 해 인기가 높은 양지에 독립출판가의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독립출판

나만의 사진책' (매주 목요일, 28일-7월 2일)도 진행된다. 문화예술단체 '순수'의 '새로운 두드림 New Beating, 전통과 재즈의 유쾌한 만남' (매주 목요일, 6월 4일-6월 18일)도 펼쳐진다. 전문 재즈 음악가와 협업으로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타악기를 활용한 연주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ACC 특화강좌로는 음악평론가인 한경재 여행작가가 ACC월드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해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는 음악, 월드뮤직 기행' (매주 토요일, 7월 4일-7월 25일)을 풀어낸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원데이 클래스는 '바우하우스의 유산과 미국 현대미술관계의 패권(재)창출' (7월 22일)을 주제로 임근준 미술·디자인 연구자가 진행한다. 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본 바우하우스 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심층 탐구하고 현대미술의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이다.

수강신청은 ACC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강좌별로 다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무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시로 만나는 '주먹밥'

이두환 작 '밥심' 지산딸기 자미잡곡 주먹밥

'주먹밥'의 재해석

'오월 항쟁'을 대표하는 주먹밥을 소재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미술 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주먹밥 작품과 함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먹밥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다.

광주시 북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고 광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광주 주먹밥 전시회'를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북구 남도향토음식 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시에는 김희순·이두환 등 14명이 참여해 5월 항쟁과 주먹밥이 갖는 의미를 조각, 한국화, 서양화, 야생화,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장르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6월 19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작가 14명 참여...실제 주먹밥도 전시

전시회 기간 중 광주의 7개 주먹밥 판매업체와 협력해 5·18 주먹밥, 목은지불고기쌈 주먹밥, 해물도마토 주먹밥, 한우불고기 주먹밥, 참치 주먹밥, 주먹밥 도시락 등 실제로 판매 중인 주먹밥을 특별 전시한다.

특히 북구는 북구의 특산품인 자미잡곡과 지산딸기를 이용한 주먹밥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 전시에는 푸드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호원대학교 김나형 교수가 참여해 각 주먹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를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움의 반란'

비움박물관 30일까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삶의 흔적이 생생히 담긴 생활민속품을 꾸준히 전시하고 있는 비움박물관이 5월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아름다움의 반란' 전으로 5월 광주시민들의 주먹밥 정신을 상징하는 소장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전시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동력을 제공했을 밥이 담긴 수많은 사발을 비롯해, 김이 나는 밥을 지어낸 가마솥,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먹던 밥상, 소쿠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영화 관장은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독재 앞에 오직 광주시민들의 사람다운 마음으로 맞서던 밥, 주먹에서 주먹으로 쥐어주던 주먹밥의 정신으로 한국 전통 민예품들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책·카페·커피... 마음치유

카페 필로소피아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투어' 6월 7일~9월 6일



데이네카 작 '책을 읽고 있는 여자'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 향기로운 커피와 차, 그리고 책과 토론.

광주 동구 지역의 카페를 투어하며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이끄는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가 주최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 투어'가 열린다. 오는 6월 7일부터 9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동구 인문동아리 지원사업이다.

코로나 19로 피폐해진 마음을 치유하는 기획인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선정된 책을 먼저 읽고 참가자 모두가 마음을 여는 대화를 나눈다.

첫 모임은 6월 7일에 윤림동 '더 박스(The Box)'에서 열린다. 함께 읽는 책은 20세기의 지성으로 불리는 버트렌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다.

이어 28일에는 소태동 '차생원'에서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를 읽으며 7월 19일에는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정슬 플라워 카페'에서 탁났한 '화해'를 만난다. 8월에는 두 차례 행사가 열린다. 9월에는 궁동 예술의 거리 '달정원'에서 아들러의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를 읽고 30일에는 대의동 복합 문화공간 김넷에서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몰랐냐'를 만난다.

9월 6일 전남여고 정문 앞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에서는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투어' 프로그램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무료 참여. 010-9603-324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몰랐냐

Box'에서 열린다. 함께 읽는 책은 20세기의 지성으로 불리는 버트렌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다.

이어 28일에는 소태동 '차생원'에서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를 읽으며 7월 19일에는 꽃과 식물이 어우러진 '정슬 플라워 카페'에서 탁났한 '화해'를 만난다. 8월에는 두 차례 행사가 열린다. 9월에는 궁동 예술의 거리 '달정원'에서 아들러의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를 읽고 30일에는 대의동 복합 문화공간 김넷에서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몰랐냐'를 만난다.

9월 6일 전남여고 정문 앞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에서는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투어' 프로그램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무료 참여. 010-9603-324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